

# 역점 현안 해결 위해 국회 총횡무진

김관영 도지사, 국립의전원법 제정·새만금 사업 기반시설 예타 일괄 면제·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등 건의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15일 전북 국회의원의 조찬간담회에 이어, 여야 지휘부 면담 등 국회에서 총횡무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직접 찾아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박대출 의원을 만나 공공의료 인력 의무복무 근거 등을 규정한 국립의전원법을 제정해 지역 간 의료 공극·이용 불균형 해소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남원(구)서남대(의대 포함)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안으로 검토된 국립 의화전년대학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고, 새만금신항이 국제교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재정부지의 효율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19일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김 지사(사진 오른쪽)가 강 의원에 현안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 및 형평성, 5만톤 항만의 완전한 개장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한 신속한 총사업비 조정과 민자로 계획된 1단계 배후부지의 재정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다불어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의 전북 이전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을 위해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김 지사를 비롯해 도 지휘부는 수시로 국회와 부처를 방문해, 국립의전원법, 전북특별법 등 현안 법안, 전북 새만금 아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공모사업에 대한 설득·건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정치수사에 불체포권리 포기”

민주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증을 총 동의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부당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터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협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기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 국민을 향해 힘 없이 칼을 휘두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며 “원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권리 포기 발언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비명계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특히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스

## “지방의회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을”

김정수 도의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주최 세미나서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김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열린 토론회 참가 신청접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월 2일 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tbatti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등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원, 대학생부 400만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안호영 의원, 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4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여권 신장 여성 복리증진, 지역 내 여성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



다. 또한 정계 입문 전부터 전주여성 의전화 후원이사장,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 해온 일관된 행보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부총

## 천막 임대 잡화 행사 대행



### 삼성천막대여사

- 대표이사: 김창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42(금상동)  
joochim@hanmail.net  
063)244-2928

## 서비스 도소매